

투데이

서태지·이지아 부부였다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원고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라는 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여) 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려 1월19일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으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날 스포츠서울은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서울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라며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의 위자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

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지아란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도 그들이 '그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그간 열애설에 휩싸인 적도 없어 갑작스레 이혼설이 불거지자 소속사와 팬들은 충격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자들과 접촉이 안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와 어제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아는 바

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같이 활동했던 양현석은 "2~3년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 했지만 결혼 사실은 물론 이혼 사실도 몰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까지 비밀에 부친 게 놀랍다"고 말했다.

2005년까지 서태지와 함께 일했던 매니저도 "매니저 또는 경호원이 서태지에게 붙어있는데 3년간 함께 일하며 단 한차례도 이지아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 이지아와 연인 관계를 맺었던 배우 정우성은 "이지아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믿기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우성의 소속사 토러스필름의 김연하 대표는 "우성 씨가 무척 당황해하고 있다"라며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태지 팬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

다. 팬들은 "서태지의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시간이 갈수록 더 충격적일 것 같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달라"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서태지의 공식 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에는 팬들의 접속이 폭주,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1996년 1월 서태지와아이들 은퇴 후에 돌았던 투머 등을 거론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7년 서태지가 미국에서 주유소 딸과 결혼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혹시 이지아였던 것인가" "서태지의 노래 '필승'에서 '난 정말 바보였어' 부분이 여자 목소리란 얘기가 있었는데 이지아였을지도 모르겠다" "2009년 '웜 홀(Worm Hole)' 콘서트 때 이지아가 관람과 서태지가 사귀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북구, 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 5억 받아

광주시 북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5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244곳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사업 등 주민 체감경기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으로 각종 예산을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 게시판을 통한 조기집행 참여 확산과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1000만원 이상 사업단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유무선통합서비스 구축

전남도는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과 협력,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유무선통합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청 및 도의회, 전남소방본부를 방문하는 사람은 와이파이(Wi-Fi)존을 통해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도 스마트폰에 조직도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전화연결, 문자 전송 등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메일 확인, 내부문서 확인 등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도청의 그룹웨어를 탑재해 더욱 빠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게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유무선통합서비스 구축으로 최첨단 통신환경을 갖춘 도청으로 거듭났다"면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웅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예비군이라도 대학생은 일반인이 받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이 문제를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개선과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지만,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매년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라 예비군을 강화하려면 대학생 예비군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대학생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까지 확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동인가제'도 도입된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들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외 지역은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민관합동 정책 워크숍

21일 광주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1 광주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에서 강문태 광주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인 美 방문때

대면심사 안 받는다

韓·美 양국 원칙 합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갈 때 공항에서 까다로운 대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알란 버신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이 양국 국민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이번 합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Global Entry Program,GEP)를 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는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국심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심사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GEP는 현재 뉴욕과 LA, 댈러스 등 20개 주요 공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의 날’...광주·전남 공공기관 ‘한 등 끄기’

상무지구 난타 음악공연도

제41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광주 등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열린다.

환경부는 '전국 한 등 끄기 행사'를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3315개 공공기관과 4291개 공동주택 단지(211만 가구)가 참여한 가

운데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조명을 꺼줄 것을 환경부는 당부했다.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평화공원에서는 '지구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의 식전행사로는 자전거대행진(오후 1시~1시40분), 난타

음악공연(오후 1시 40분~2시)이 준비됐다.

부대행사로는 흥보체험부스,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숲속 갤러리, 무직 페스티벌 등이 예정돼 있다. YMCA와 광주새마을회가 주최하는 재활용 장터와 교육 물려주기 행사도 진행된다.

또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공예작품 등을 전시하는 '기후재단 기

금 마련을 위한 Eco 아트 페어'행사가 지난 20일부터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1층 롯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롯데갤러리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조성된 기금은 기후재해가 많은 방글라데시 환경단체와의 협력프로그램을 여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지구의 날은 지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자연보호론자 2000만명이 모여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과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 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 의 02)6908-7021, 7024 (신원종합개발)
※참조 : 공사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①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②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③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④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⑤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한도 : KB시세~80%+α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달달 010-7112-3135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로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급 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 락 처 062)651-8871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

지중화고시취소및 공중전기간선설치공고

광양만권 읍촌 제1산업단지 7블럭 구간에 대한 전력설비 지중화사업을 취소하고 공중(가공) 전기간선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중화 확정 취소 지역
○ 광양만권 읍촌 제1산업단지 7블럭(자유무역지역)
- 전기간설 설치방법 변경
지중공급 → 공중(가공) 공급
- 지중화 확정지역 취소 사유
○ 위 지역은 '09.4.29. 지중화 확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사업시행 주체인 지식경제부 읍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공중공급 요청
- 공사예정기간
2011. 4 ~ 5월 (2개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PCO 광주건설소 변전팀 (☎062-720-43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2일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점장

